

- 다출원 기업과 공동으로 제1회 민관 협력 열린 특허기술 포럼 개최 -

하지만, 심사가 어려운 최신 융복합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특허청이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는 발명가 등이 직접 참여하여 심사관의 기술 이해를 돕는 협력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관 협력 열린 특허기술 포럼은 출원인이 주도하는 기술세미나를 지향하며, 특허출원이 많은 기업을 분기별로 초청하여 최신기술 및 특허관리전략을 공유하는 기업 초청 세미나와 발명가 등이 심사관 대상으로 자신의 전문분야를 강연하는 전문가 세미나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3월 4일 개최한 제1회 민관 협력 열린 특허기술 포럼은 특허출원 1위인 삼성전자 특허관리 담당 임원 및 관련 기술분야 연구원을 초청하여 삼성전자가 생각하는 특허관리전략 강연과 함께 의료장비, 방송기술, 플래시메모리, AP* 등 4개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세미나를 진행하였다.

* AP(Application Processor),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통합 시스템반도체 칩

전문가 세미나는 민간 전문가 주도로 자신의 경험과 최신 기술을 심사관과 공유하는 자리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특허심사기획과 (042-481-847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스템이 구축되는 5월부터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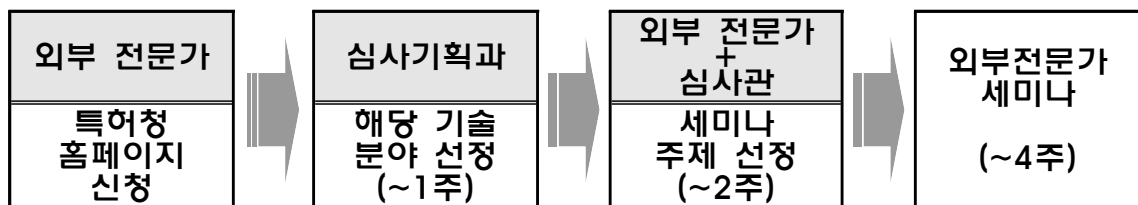
류동현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열린 특허기술 포럼은 출원인이 직접 최신 기술을 심사관과 공유함으로써 심사관과 출원인 간의 특허성 판단의 견해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붙임: 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열린 기술 포럼 추진 계획 1부.

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열린 기술 포럼 추진 계획

□ 민관 협력 열린 기술 포럼 추진

- 多 출원 기업의 최신 기술을 심사관과 공유하기 위하여 多 출원 기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술 세미나 추진
 - 융·복합 기술, 표준·원천·선도 기술 등 多 출원 기업의 강점으로 꼽히는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기술분야 심사관 대상으로 세미나
- * 해당 기술분야는 3~4개 기술분야로 다수 심사관이 참여 가능하도록 선정
- 심사관의 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심사관 기술 세미나 추진
 -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 외부 전문가가 심사관 대상 세미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
- * 심사기획과에서 외부 전문가를 검증하고, 신청 후 4주 이내에 세미나 개최



□ 제1회 기업 세미나 추진 계획

- (주제) 삼성전자의 IP 전략과 첨단 기술을 심사관과 공유함으로써, 심사관의 기술 전문성 제고
 - (Session I) 삼성전자의 IP 현황 및 IP 전략
 - (Session II) MMI*, V_NAND, CT 기술, AP architecture 등 최신 분야에 대해서 삼성전자 기술 세미나 시행
- * MPEG에서 표준화 중인 차세대 멀티미디어 다중 전송 표준
- (일시) '15년 3월 4일(수) 10:30 ~ 17:00
- (장소) (Session I) 대전청사 3동 2층 204호(대회의실)
(Session II) 대전청사 2동 205, 207호 (중회의실 1,2)